



문화를 품은 건축물 열전 **건축** 도시의 미래가 되다



미술관에 들어서자 낮은 풍경이 펼쳐진다.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분위기가 감도는 여느 전시장과 달리 비좁은 공간에 '뽁뽁'하게 늘어선 작품들이 생경스럽다. 순간, '미술관이 뭘?'라는 생각이 스친다. 철제로 만든 선반 위에 조각 작품들이 나란히 쌓여 있고 바닥 곳곳에도 대형 설치 작품들이 놓여 있다. 특별한 동선도 없어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돌아 다니며 전시된 작품들을 관람한다.

'속이 보이는' 열린 미술관 '아트 팩토리'에 탄성을 터트리다

(21)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담배공장 리모델링 '문화발전소'로 2011년부터 청주공예비엔날레 개최 빛·온도에 덜 민감한 설치작품 많아 5월 9일까지 '우향 박래현 기념전'

'국내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

지난 2018년 12월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국내 미술계를 향해 내세운 슬로건이다. 말 그대로 미술관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컬렉션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내보이는 독특한 콘셉트다. 일명 '속이 보이는' 미술관은 어디에서 찾아 보기 힘든 희소성으로 개관과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개관 1년 만에 21만 명이 다녀간 것만 봐도 '열린 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데에는 공간의 변신이 있다. 낡은 담배공장에서 화려한 문화 발전소로 환골탈태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46년 청주 내덕동에 설립된 연초제조장은 한때 청주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근로자 2000명이 담배 100억 개비를 생산하던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공장이었다. 하지만 금연연구의 증가로 담배산업이 위축되면서 2004년 70년 만에 가동을 멈추자 일대는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철거나, 재개발이나. 도시의 애타게 신세였던 옛 연초제조장의 활용 방안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응은 크게 갈렸다. 오랜 공론화 과정 끝에 청주시가 선택한 카드는 '리모델링'이었다. 철거나 재개발 보다는 시민들과 동고동락해온 공장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청주시는 담배공장을 매입한 뒤 2007년부터 문화단지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청주공예비엔날레의 '효과'가 큰 몫을 했다. 지난 1999년 창설된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통해 미적 안목과 문화 마인드를 높인 시민들이 예술의 힘에 주목한 것이다.

지난 2011년에는 청주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진행하던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옛 연초제조장으로 무대를 옮겨 문화산업단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국 각지에서 청주를 찾은 관람객들은 옛 담배공장을 예술로 부활시킨 '아트 팩토리'에 탄성을 터뜨렸다. 이같은 반응에 고무된 청주시는 마침 수장고 부족을 겪고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장형 미술관'이라는 흥미로운 제안을 건넸다. 정부는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통해 부활한 옛 연초제조장이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로 부상하자 청주시의 러브콜을 받아들여 공사비 577억 원을 지원했다. 당초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품 1만1000여 점을 소장하는 수장 보존센터로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청주시가 전시·교육 공간을 포함 시키면서 '미술관'으로 거듭났다.

청주관의 색깔을 엿볼 수 곳은 바로 1층 개방형 수장고다. 관람객들이 전시장이 아닌 미술관의 수장고에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이다. 보통의 부 환경에 민감한 미술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장고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 빛에 덜 예민한 조각, 설치작품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다. 마치 창고형 마트의 물건처럼 층층히 놓인 작품들이 미술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2층의 '보이는 수장고'는 수장고 내부에 전시된 작품을 유리 너머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니키 드 생팔의 '검은 나나', 이불의 '사이보그 W5', 서도호의 '바닥', 백남준의 '데카르트', 장 드 뷔페의 '집 지키는 개' 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3층은 정부가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미술작품을 대여주는 '미술은행'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개방형 수장고와 보이는 수장고 두 가지 형태로 운영중이며 미술품의 전문적인 보존 처리, 검사 과정은 '보이는 보존 과학실'에서 공개한다. 4층 특별 수

장고는 원래 연구용으로 쓰이는 공간으로 실제 수장고와 가장 유사한 형태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기증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장고로, 김중현(1917-1991), 임응식(1912-2001), 한기석(1930-2011), 황규백(1932-)의 작품 약 800점이 소장돼 있다.

5층 기획 전시실은 누구나 상상하는, 일반적인 전시장 풍경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우향(雨響) 박래현 탄생 100주년 기념: 박래현, 삼중 통역자' 전시가 한창이다. 20세기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동양화가 운보 김기창(1913-2001)의 아내인 박래현은 생전 여성이란 이유로 미술계로부터 예술 세계를 조명받지 못했다.

이번 전시는 1부, 한국화의 '현대', 2부 여성과 '생활', 3부 세계여행과 '추상', 4부 판화와 '기술'로 나눠 청주관의 전시공간에 맞춰 압축적으로 풀어냈다. 우향의 일상과 예술을 담은 영상을 먼저 접하고, 이후 전시실에서 직접 작품을 감상하는 구성이다. 전시장 곳곳에 비치된 기고문(수필) 한글 북제본과 문구를 병치시켜 마치 테피스트리의 들실과 날실처럼 엮이고 짜내려간 그녀의 삶과 예술의 여정을 따라 가도록 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청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김기창 화백의 '화가 난 우향'(1960년대)을 비롯해 지역 작가와 청주시민들과의 호흡이

- 1 5층 기획전시실 내부 모습
- 2 미술관에 전시된 소장품들

3 지난 2018년 '수장형 미술관'으로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내부 전시장 모습. 마치 창고형 마트에 진열된 상품처럼 관람객들은 수장고에 전시된 미술품을 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제공>

- 4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전경
- 5 옛 담배공장 모습



초점을 맞췄다"면서 "박래현과 김기창의 삶과 예술이 깃든 청주에서 우향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청주는 우향의 삶과 예술이 잠들어 있는 뜻깊은 곳이다. 평생 삶과 예술의 여정을 함께 했던 운보 김기창 화백은 우향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의 고향인 청주로 내려와 '운보의 집'을 짓고 아내와의 추억을 기리며 여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오는 5월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회화, 판화 등 104점의 작품과 자료 18점이 공개된다. /청주=박진현 문화선임 기자 jhpark@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